

〈환마이(軟埋)〉 소고

김 미 정*

〈目次〉

I. 〈환마이〉를 둘러싼 풍파	V. 靑林의 여정 속의 역사 풍경
II. 〈환마이〉의 발상지-역사와 현실의 착위	1. 개인 공간의 역사 서사
III. 〈환마이〉의 서사전략-역사의 현장을 향한 시선들	2. 역사를 구성하는 다성의 변주
IV. 영혼을 찾는 丁子桃의 분투	VI. 역사에 대한 태도-망각과 기억의 의미
	VII. 나가는 글

I. 〈환마이(軟埋)〉를 둘러싼 풍파

중국 작가 方方이 2016년 《人民文學》 2기에 장편소설 〈환마이(軟埋)〉를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도 낯선 용어 ‘軟埋’에 대해 方方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관이 없이 시신을 직접 흙에 묻는 것, 이것이 환마이 이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전히 과거를 물어버리고, 자신의 내력을 봉쇄하여 지난 일을 잊고 기억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고의적이든 결국은 모두 시간에 의해서 ‘환마이’되고 있는 것이다.¹⁾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方方, 〈後記:我們不要軟埋〉, 《軟埋》, 人民文學出版社, 297쪽.

결국 ‘환마이’란 사람의 죽은 뒤에 관(棺)도 아무런 장례의식도 없이 그냥 흙에 묻히는 것을 나타내는 四川지방의 지방어이면서, 개인적 혹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거부하는 유·무의식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소설 〈환마이〉가 풍부한 미학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런데 이 〈환마이〉를 두고 2016~2017년 사이 중국 문단에 상당한 풍파가 있었던 듯하다. 필자가 처음 이 작품의 소식에 접했을 때, 〈환마이〉는 이미 중국에서 출판정지, 판매금지된 상황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나름의 치열한 사상해방시기를 거쳐 과거의 교조적 문학이데올로기에서 어느 정도 탈피했다고 생각했던 21세기 중국문단에 금서가 다시 등장한 것도 기괴한 일이었지만, 모바일인터넷 시대에 서적에 대한 출판 판매 금지라는 경직된 발상이 오히려 〈환마이〉를 인터넷 최고 인기 소설로 만들어준 상황은 중국에 대한 사회문화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과연 21세기 중국은 어떤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것일까?

〈환마이〉는 왜 공격당했을까? 〈환마이〉는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민감성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환마이〉에 대한 비판은 좌적 정치성향을 지닌 상당 수의 매체와 매체의 담론 주도권을 쥔 사람들에게 의해 가히 ‘圍攻’이라 불릴만큼 치열²⁾했지만, 方方이 직접 반박하며 쟁점을 키운 것은 중국 공산당내 정치적 입지를 지니고 있는 다음 두 사람의 비판이었다.

〈환마이〉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세 아래 이데올로기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의 반영이고, 우리 당이 영도했던 토지개혁운동에 대한 반격이자 성과에 대한 탈취이다. 이 소설 및 다른 불량한 작품의 출현은 習近平동지의 문예공작좌담회에서의 강화 정신을 관철함에 있어 문예계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³⁾

2) 張旭, 〈媒體批評, 警惕陷入非文學的陷阱—關於對‘軟埋’媒體批評的思考〉, 《三峽大學學報》, 2017.5.28.

3) 張全景, 〈‘軟埋’是新形勢下意識形態領域階級鬭爭的反影〉, 2017.5.22, 中國夢文學網, 이 글은 이후 중국인터넷웹사이트 곳곳에 轉揭됨. 張全景은 前중공중앙

믿기 어려운 사실은 湖北省 작협 주석인 方方여사가 이미 소멸된 지주 계급의 입장에 서서 날조된 역사로써 토지개혁에 대해 전면적인 청산과 고발을 하는 천하의 무도한 짓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 독자의 말처럼, 당시 ‘지주환향단’이 총칼을 앞세워 해방된 농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다시 빼앗고, 농민들을 미친 듯 도살하고 박해했던 것과 같다. 〈환마이〉는 펜을 총칼삼아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광대한 빈하중농을 향하여 정치적 도덕적 인성상의 고발과 청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

張全景과 趙可銘의 비판은 문학작품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비판이다. 그런데 〈延安文藝講話〉 이후 40년의 중국문학을 상기하자면, 이런 류의 비판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논조가 21세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方方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학이 지난 지 40년, 개혁개방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더욱 선진적이고 더욱 문명화되고 더욱 강대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갔지만 문혁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늘상 그들이 한데 모여 작당하면, 뒤로 잡아끄는 힘은 앞으로 당기는 힘을 능가했다. (...) 지금 張·趙 두 고관의 협소한 흥금과 진부한 이념, 극좌분자의 복수와 원한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수단을 보면서, 순간 깨달았다. 개혁개방과 사회 진전의 걸음걸음은 그 얼마나 어려운가!⁵⁾

위의 입장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환마이〉를 둘러싼 ‘문학사건’은 큰 틀에서 보자면 분명히 중국현대문학의 오랜 쟁점,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보자면 〈환마이〉가 풍파를 일으킨 것은 바로 중국혁명을 규정짓는 또다른 역사적 사건, ‘토지개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문제는 이미 문학에

조직부 부장.

4) 趙可銘, 〈‘軟埋’是對土改的反攻倒算〉, 2017.5.23 中國夢文學網.

5) 方方, 〈好像真是在大上演大戲了〉, 2017.5.23 方方新浪微博.

대한 제한적 자기비판을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중국공산당에게 근원적인 통치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었다. 자칫 중국공산당의 존립 근거인 농촌혁명의 정당성, 계급노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환마이〉는 지금까지 중국혁명의 토지개혁운동을 대표하던 丁玲의 〈태양은 상간하에 비친다〉나 周立波的 〈폭풍취우〉와 정치적 입장, 문학적 의의, 서술방식 등 많은 면이 다르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혁명노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반공소설로 소개됐던 張愛玲의 〈秧歌〉 〈赤地之戀〉과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환마이〉는 서술구도와 방식에서 인물의 상호 관계 및 형상, 주체의식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역사와 현실, 기억과 망각, 삶과 죽음, 분노와 포용, 원죄와 속죄, 진실을 찾아 지옥을 헤매는 영혼의 여정 등 수많은 관건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다중의 긴장감과 울림을 자아낸다. 소설의 결말에서 그 치열했던 역사사건에 대해 어떤 이는 애써 망각하고, 어떤 이는 회피하고, 어떤 이는 기억하고, 어떤 이는 기록하지만 그 배후에는 각각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주체의 삶을 향한 합리성이 작동한다. 결국 〈환마이〉는 어느 한 계급, 또는 특정한 입장을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학전통을 감안한다 해도 〈환마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무모하고 의미없게 보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II. 〈환마이〉의 발상지—역사와 현실의 착위

토지개혁운동이 중국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식’ 사회주의혁명의 두드러진 특징이 농촌혁명이었고, 혁명의 선봉대가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수억 농민의 에너지를 혁명의 현장으로 끌어낸 것은 토지개혁운동이었다. 그런데 중국농촌혁명을 선도했던 중국공산당에 농촌혁명에 대한 설계가 처음부터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으로 농민

들 속에서 혁명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중국혁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毛澤東이지만, 그의 주된 메시지는 혁명의 격렬함, 계급투쟁의 정의로움, 폭력혁명의 정당성에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과도하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矯枉必需過正, 不過正不能矯枉)”거나 “혁명은 결코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도, 문장을 짓는 것도, 그림을 그리고 꽃을 수놓는 것도 아니다. 혁명은 그렇게 품위있고 우아하며 기품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폭력이며,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뒤집어엎는 격렬한 행위이다”⁶⁾라는 말 속에는 毛澤東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계급투쟁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토지개혁이 본격화할 무렵, 중국공산당의 공식문건과 빈번한 지시에는 토지개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난다. 1946년 〈5·4지시〉와 1947년 〈중국토지법대강〉, 1950년의 〈토지개혁법〉 등을 살펴보면,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당에서 주목하고 강조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⁷⁾할 수 있다.

우선 1946년 〈5·4지시〉를 살펴보면, “농민의 토지 대량 획득과 지주의 토지 상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농민들의 일체의 정당한 주장과 정의로운 행동을 굳세게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지주에 대한 태도는 대지주, 토호, 향촌의 악질 권력자(惡霸)를 대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항일가속, 열사가속, 간부가속 및 개명신사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지를 남겨주어 그들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⁸⁾고 말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욕망과 구체적 행동에 당위성과 정의로움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토

6) 이상의 인용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91, 17쪽.

7) 중국 토지개혁상황에 대한 기본 정리는 楊奎松 〈關於戰後中共和平土改的嘗試與可能問題〉, 楊奎松 〈新中國土改背景下的地主問題〉, 유용태 〈중국의 토지혁명과 신민주주의경제, 1945~1953〉 등을 참고함.

8) 이상의 인용 〈中央關於土地問題的指示〉에서 발췌, 楊奎松(〈關於戰後中共和平土改的嘗試與可能問題〉, 《南京大學學報》 5기, 2007)에서 재인용.

지개혁의 투쟁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중소지주 및 항일열사, 당간부, 항일운동에 참가한 개명신사 계급 가운데에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상매수’의 점진적 토지개혁의 방침은 점차 농촌 현장 간부의 불만과 평균분배를 요구했던 빈농들의 욕망, 그리고 균중운동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방침 속에서 ‘무상몰수’의 급진적 토지개혁의 발동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1947년의 <토지법대강>에는 耕者有田의 실행방법으로 농촌의 모든 지주의 토지 및 재산의 몰수는 물론이고, “부농의 토지와 재산 중 중농 규모 이상의 부분을 몰수하여 빈농에게 균분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빈농의 평균분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농을 부농으로, 부농을 지주로 둔갑시키고 그 토지를 몰수하면서 대량의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47년 한 해에 이 급진노선의 결과 지주부농으로 분류된 사람은 전체 농민 가운데 25%에 달했고, 무려 25만 명 이상이 이른 바 ‘亂打亂殺’에 의해 살해당했거나 자살했다.⁹⁾ 정책의 급진성과 실행 과정의 참상 속에서 중농들의 반발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지도부는 1948년 다시 온건노선으로 선회하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중농중심의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1950년의 <토지개혁법>에도 반영된다. 총칙에서 “지주계급의 착취적이고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소유제를 실행함으로써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다.”고 밝힌 토지개혁법은 “부유중농을 포함한 중농의 토지와 기타 재산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아니한다(7조)”, “무분별한 체포, 구타, 살해와 각종 형식의 체형은 엄금한다(32조)”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실제 토지개혁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중(부)농보호문제, 폭력문제, 항일열사가족 개명신사와 같은 중국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문제 등으로

9) 유용태, <중국의 토지혁명과 신민주주의경제, 1945~1953>, 《중국근현대사연구》 55집, 2012년 참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급진좌경과 중도적 통일전선을 오락가락하며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하던 당의 입장이 토지개혁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는 또다른 문제였다. 이미 1948년 任弼時는 〈土地改革中的幾個問題〉에서 “土改운동 가운데 적잖은 구타毆박 살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죽을만한 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맞아 죽고 살해(亂打亂殺)되었다, 이에 대해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¹⁰⁾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토지개혁법〉이 반포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설계된 〈토지개혁법〉의 온건노선을 무의미하게 했다. 毛澤東은 아직 전면적인 토지개혁투쟁이 일어나지 않은 남쪽 지역의 투쟁을 독려했고, 그것은 이 시기 토지개혁운동이 과열된 폭력적 양상을 띠게 했다. 楊奎松의 연구는 당시 중국 전역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투쟁의 충격을 보여준다. 廣東省 東江 지구만 놓고 보았을 때, 1951년 상반기 몇 개월 사이 5698인과 투쟁했는데, 그 가운데 지주는 2567인, 부농은 1047인으로 분류됐다. 그 가운데 3642인을 처결했고, 또다른 2690인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자살했다.¹¹⁾

이쯤에서 張全景의 비판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중국 혁명주류계층의 土改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土改 중, 개별 지방에서 난타난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군중의 고통과 원한이 컸고, 몇몇 지주들의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중국혁명이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이고, 계급투쟁이 격렬했으며, 환향단이 돌아와 농촌간부와 적분분자를 도살할 때였다. 이에 반해 方方이 쓴 시대배경은 1951~1952년인데, 그 때는 전국이 이미 해방됐고, 老區의 土改도 완성됐으며 土改에서 상당히 성숙한 경

10) 이상의 인용, 任弼時, 〈土地改革中的幾個問題〉(<http://www.71.cn/2011/0111/99245.shtml>) 참고.

11) 楊奎松, 〈新中國土改背景下的地主問題〉, 《史林》 6기, 2008.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 남방 신해방구의 土改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흡수하여 비교적 온건하게 정책을 집행했고, 난타난살은 없었다. (...) 方方이 말한 그런 황당하고 괴이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날조된 것인지 알 수 없다.¹²⁾

張全景의 주장은 土改 초기에 부분적인 ‘난타난살’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주들의 죄가 극심하고 군중의 원한이 너무 큰 까닭이었고, 1948년 이후 난타난살을 금하는 중앙당의 훈령이 반포된 다음에는 더 이상 土改과정에서 폭력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정치이데올로기적 규정일까?

〈환마이〉는 이 문제에 대해 특이한 방식으로 돌려 말했다. 〈환마이〉 서사의 주요 인물인 靑林이 우연히 川東지방을 방문했을 때, 처음 찾아간 곳이 大水井 李蓋五의 저택이었다. 이 大水井은 실제로 湖北省 利川市 柏楊塢鎮의 심산에 존재하는 莊園이다. 소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토비들이 극성이던 시절, 중국공산당과 함께 토비소탕 작전에 공을 세웠던 개명신사 李蓋五가 장기적인 수비를 위해 원내에 큰 우물을 팠기 때문에 大水井이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소설은 시골 노인의 입을 통해 大水井의 주인 李蓋五의 최후를 전하고 있다.

우리 주인이었던 李蓋五 영감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토비와 악패 소탕 때 적극분자였지. 이후에는 萬縣에서 土改운동 대장도 했었어. 그 사람은 이번 土改 때 화를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농회에서 기어이 그더러 투쟁에 참가하라고 했지 뭐야? 그래도 현에서 그 사람을 보호했고, 또 규정에도 마구 때리거나 죽일 수 없어서, 별수 없이 농회도 현의 말을 들었어.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일가족을 모조리 장원에 가두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했어. 때리지도 죽이지도 않았지만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거야. 현에도 이걸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었지. 결국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산 채로 굶어죽었어.¹³⁾

12) 張全景, 앞의 글.

李蓋五의 최후에 관한 묘사는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부합한다. 사실상 중국혁명의 과정은 중국공산당이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하면 곧바로 일사 분란하게 실행되는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중국혁명은 점진적인 개량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다른 제도로 대체되고,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뒤엎는 급진적인 사회변혁이었다. 이런 혁명은 필연적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마련이며, 특히 중국현대사에서 토지개혁문제는 격변시대의 잔혹한 폭력적 색채를 떨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현대문학 60년사에서 ‘생활의 진실’에 정면으로 다가간 토개 제재의 걸작이 없다¹⁴⁾는 陳思和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활의 진실은 결국 역사를 살았던 보통의 개인이 경험한 삶의 진실이고, 역사에 대한 추상화된 이데올로기의 본질이나 윤리적 판단 이전의 객관적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미미한 개인일 따름이지만, 역사의 폭풍에 휘말려든 주체적인 ‘나’의 이야기가 없는 한,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도 〈폭풍취우〉도 결국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마이〉는 역사와 현실의 착위, 거대서사와 개인 서사 간의 부정합 속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애초부터 문학의 원형질의 세계였고, 또한 소설 〈환마이〉의 발상지였던 것이다.

Ⅲ. 환마이의 서사 전략-역사의 현장을 향한 시선들

〈환마이〉는 스토리 구성은 상당히 독특하다. 일단 소설의 시작이 별다르다. 아무런 단서 없이 “이 여자는 자신과 투쟁 중이다”¹⁵⁾고 시작한다.

13) 方方, 《軟埋》, 86쪽.

14) 陳思和, 〈土改中的小說與小說中的土改〉, 《南京大學學報》 제4기, 2010. 陳思和의 위 논문은 광범위한 예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의 한 사건으로 土改에 대한 문학적 인식의 문제, 土改문학의 제약과 가능성 등에 대해 중국문단과 학술계에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丁子桃의 현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현재는 과거 사건의 인과에 의한 기초와 유래가 없다. 한 인물의 삶의 역정 중간단계에서 갑자기 丁子桃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1952년 四川 동쪽의 永谷河에서 빈사상태로 구조됐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강에서 익사 직전에 발견됐는지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 기억의 浮上을 거부한다. 그녀를 소생시킨 의사 吳家名은 모든 기억을 잃고 오직 “釘子”만을 되뇌인 그녀에게 ‘丁子桃’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고, 군간부 劉晉源 가정의 보모로 살도록 주선한다. 이후 吳家名은 丁子桃와 재혼하여 아들 靑林을 낳는다. 그 와중에도 丁子桃의 모호한 기억에 스멀스멀 배어있는 불안은 늘 악마처럼 그녀를 괴롭힌다. 그 악마는 때로 자애로운 남편 吳家名 같기도 하고, 심지어 갓 태어날 아들 靑林 같기도 하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본능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녀는 루드르의 성모상 앞에서 ‘원죄 없음’으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기억상실 속에서의 위로는 공허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남편 吳家名이 뜻밖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丁子桃는 다시 보모생활을 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 靑林을 부양했고, 靑林은 대학을 졸업한 뒤, 武漢의 한 부동산개발회사의 지배인이 된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靑林은 자신의 대저택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그런데 새 집에 처음 들어가는 丁子桃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급기야 그날 밤 이후 丁子桃는 신체적, 감정적, 언어적 능력이 사라지고, 오로지 수면, 식사, 배변 등 생리적인 반응만 남아 있는, 영혼이 육신에서 떨어져나간 유체이탈의 반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소설 첫머리의 서술방식은 뜻밖에 독서의 공간을 넓혀주며 의미 있는 형식을 만들어낸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텍스트 안의 단서들에 의지하여 丁子桃의 미지의 과거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기억을 거부하는 속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로놓여있

15) 方方, 《軟埋》, 1쪽.

을 수밖에 없다. 丁子桃의 기억은 그녀가 차마 되새길 수 없는 고통에 얽힌 채 심연 속에 가라앉은 형상이다.

소설은 그러한 단서들을 첫머리 곳곳에 깔아놓았다. 靑林을 따라 새 집에 갈 때 호수 위를 날아가는 물새를 보며 느끼는 구도감, 우리 집이란 말에 “且忍廬? 아니면 三知堂?”이란 반문, “이건 지주의 집이 아니냐? 그들이 재산을 나누러 들이닥칠텐데”는 놀람, “창문 앞 대나무, 맑은 초록빛 홀로 빛나네(窓前一叢竹, 淸翠獨言奇)”는 謝朓의 시구, ‘鬼谷子下山圖’를 보며 불쑥 튀어나온 아버지 이야기, 붉은 모란꽃무늬 이불깃에 대한 기억, 총 개머리관에 맞았던 극심한 등의 통증, 자매 같은 시녀 小茶 등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丁子桃의 일련의 무의식적 반응은 모두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까지 소설은 丁子桃의 구차한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단층서사이다.

다른 한편 靑林은 대학동기이자 건축학 교수 龍忠勇과 湖北 서쪽(鄂西) 시골의 전통 민간대저택을 답사하다가, 자신의 상관의 부친인 劉晉源을 모시고, 四川 동쪽(川東) 지방을 방문하게 된다. 혁명의 노전사 劉晉源이 과거 토비소탕작전에 투신 했던 곳이다. 劉晉源의 옛 전우들과 시골의 마을 사람들을 통해 처음으로 혁명시기 그 지방의 수많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靑林은 그들의 ‘且忍廬’란 말 속에서 어렵פות이 어머니 丁子桃의 그림자를 포착하게 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깊이 덮어뒀던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아버지의 통한의 내력과 아버지의 눈에 비친 어머니 기억상실의 비극, 그리고 劉晉源 일가와의 특별한 우의 등을 알게 된다.

이후 상황은 육신에서 떨어져 나온 丁子桃 영혼의 지옥의 순례와 靑林의 역사의 진상을 향한 추적으로 전개된다. 丁子桃의 영혼은 지옥의 계단을 한층한층 오르며 자신의 지난 일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丁子桃가 기억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胡黛雲이 된다. 丁子桃의 과거는 胡黛雲이었다. 그래서 5장, 7장, 9장, 11장, 13장에 펼쳐지는 기억의 서사 속의 화자는 胡黛雲이다. 胡黛雲의 시각으로 친정인 胡如勻의 집안과 시가인 陸子樵 집안이 그려지고, 그 비극적인 사건들의 배후에 얽힌 신분과 계층,

은원과 애증의 관계가 서술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丁子桃는 등장한다. 丁子桃는 기억의 창틀을 통해 과거의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평가하는 관찰자이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던 胡黛雲과 그에 대한 객관적 서술자인 丁子桃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마이>의 역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분열된 자아의 상호 장력 속에서 고조된다.

다른 한편 현실 속의 靑林이 역사의 진상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아버지 吳家名의 망각의 역사, 劉晉源의 걱정의 혁명사, 龍忠勇과 함께 찾은 민간의 역사 등 세 갈래의 보조선이 작동한다. 6장, 8장, 10장, 12장, 14장에 걸쳐 펼쳐지는 靑林의 역사의 진상을 찾아가는 역정은 지금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만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靑林은 아버지 吳家名의 일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스스로 집도 이름도 없는 사람(吳의 중국어 발음이 無와 같음) 이라 이름 짓고 자신의 모든 과거와 의식적으로 결별하고 망각한 그는 원래 山西 지주 董씨 집안의 자제, 上海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한 외과의였다. 토지 개혁시기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홀로 화를 피한 그는 산속에 숨어살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우연히 산속에 쓰러진 劉晉源을 구했고, 劉晉源의 권유로 세상 밖으로 나와 군대의 의무병으로 활약하던 그는 마침내 응급환자로 실려온 丁子桃와 마주하게 된다. 丁子桃의 혼란과 불안, 히스테리 속에서 그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나왔음을 짐작한 吳家名은 홀로 살아남은 자신을 속죄하듯 기억의 공포에 빠져 있는 丁子桃를 정성껏 보살핀다.

靑林이 아버지 吳家名과 劉晉源의 깊은 관계를 알게 된 것은 劉晉源 사후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서였다. 어머니의 과거의 기억을 찾는 것이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회생시키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한 靑林은 龍忠勇과 함께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 다시 川東지방으로 떠난다. 劉晉源과 동료들의 대화 속에 있었던 막연한 단서에 따라 川東지방을 헤매던 그들은 결국 三知堂, 즉 鬼莊園을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로 부터 그 기괴한 흙무덤더

미에 얽힌 스산한 전설, 환마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게다가 三知堂의 뒷밭이 永谷河로 연결되고, 장원을 지키는 미치광이 富童이 그 옛날 鬼莊園의 하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환마이!’를 외치는 노인의 노여운 목소리와 ‘환마이하고 싶지 않아’라고 흐느끼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 靑林은 역사의 참상 앞에서 전율한다. 참혹한 역사의 진상에 마주설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어머니의 내력과 과거를 더 이상 궁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반면 龍忠勇은 그런 靑林을 이해하지만 자신은 모든 역사의 진상을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소설은 혼수상태에 빠진 丁子桃의 영혼의 여정과 21세기 중국 현실 가운데 있는 靑林의 여정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아 상호 대조하고 보완하고 교차하며 중국혁명기에 토지개혁운동 속에 휘말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 영혼과 현실이란 이중의 서사구조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환마이〉는 하나에서 둘로 나뉘고, 둘에서 다시 이중, 삼중으로 분화하는, 일종의 기호화된 나무 형태의 서사구조를 보인다. 중층의 서사구조는 매 층마다 미묘한 긴장감과 침중함을 증폭시키지만, 소설 속 인물들에게 역사의 진상은 늘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들은 진실에 거의 다가가지만 결코 마지막 해답을 찾는 절정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빠진다. 기억을 되찾은 순간 죽음을 맞은 丁子桃(胡黛雲)는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陸仲文 小茶 富童 등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고, 급작스런 劉晉源의 죽음은 吳家名을 알아본 유일한 인물 老起와 靑林을 연결하지 못한 채, 그들 일가의 대단원의 결말을 맺을 수 없게 했다. 〈환마이〉는 합리성을 열망하는 인간과 비합리성으로 가득찬 세계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이다. 그렇지만 소설 밖 최상위층에 있는 독자는 종횡으로 교차하는 이야기 속에서 시공간의 원근감을 획득하고, 소설 속 개별 인물들에게는 결코 파악되지 않았던 역사의 실체를 모자이크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독자에게만 비로소 역사의 입체적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IV. 영혼을 찾는 丁子桃의 분투

사실 기억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丁子桃는 움직이는 껍데기일 따름이었다. 그녀는 이름도 역사도 없는 텅 빈 기호로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모가 되어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육신은 현실에 있지만 영혼은 과거의 역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알 수 없는 통증과 공포는 그녀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의 증후였을 것이다. 그랬던 그녀가 엄습해오는 과거의 상징물 속에서 역사의 구렁이에 빠져 있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따라 기꺼이 지옥의 층계를 기어오르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불러오는 초혼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호출된 胡黛雲은 丁子桃가 되찾아야 하는 자신의 영혼이었고, 지옥의 불길 속을 헤매서라도 자신이 짊어져야만 하는 죄과였던 것이다.

胡黛雲이 보여준 丁子桃의 역사는 나약하고 참담하다. 胡黛雲의 친정 且忍廬와 시가 三知堂은 모두 몇 대를 내려오는 지주부호 집안이고, 부친 胡如勻과 시부 陸子樵는 모두 일본에 유학했던 개명신사였다. 부친 胡如勻은 시서화에 능하고 교양인의 풍모가 있으면서, ‘且忍廬’라는 소박한 당호처럼 매사 삼가고 조심했던 보통의 문인이었다. 시부 陸子樵는 선대에서 아편관매로 부를 축적했지만 이후 자손들을 공부시켜 관에 진출한 뒤 정당당한 望族이 된 전형적인 지방 鄉紳이다. 陸子樵는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 일찍이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귀향한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 측에 군수물자, 식량,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헌납하여 전쟁에 기여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다음에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고 토지를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土改 상황에서도 보호받을만한 정치적 자산과 명분도 쌓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급박했다. 먼저 친정인 胡如勻 집안이 비관투쟁의 대상에 올랐고 결과는 참혹했다. 胡黛雲은 현의 간부였던 오빠 胡凌雲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득이 자신의 친부모를 공개 비판하고 매질하여

간신히 비판장에서 빠져나온다. 그렇지만 胡凌雲은 가족을 구하러 돌아오는 도중에 피살됐고, 결국 胡黛雲을 제외한 胡씨 가족 전원은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土改의 풍파는 陸子樵의 집에도 불어닥쳤다. 마을 사람들이 연명한 보호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구명의 길을 마련한 陸子樵였지만,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힌 金點의 선동은 陸子樵 일가를 비판 투쟁대상으로 바꿔놓는다. 다가올 박해와 참담한 운명 앞에서 陸子樵는 최후의 만찬을 열고 일가는 스스로 환마이를 결정한다. 비판투쟁 이후 지주 재산의 분배 시 물건처럼 분배될 자신들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인들도 모두 환마이에 동참한다. 그런 중에 최소한 胡家와 陸家의 후손 한 명은 살리고자 했던 陸子樵의 사전 안배에 따라, 통곡 속에 일가의 환마이를 마무리한 胡黛雲은 젓먹이 아들 汀子를 안고 永谷河로 도망친다. 하지만 배에서 대기하던 富童은 연인 小茶를 대동하지 않았음을 원망하며 胡黛雲 모자를 저버린 채 돌아갔고, 격류 속에 내던져진 胡黛雲은 汀子를 외치다가 기억을 잃은 丁子桃로 살아난 것이다.

胡黛雲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되새기는 과정은 통한의 연속이다. 그녀는 부모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친부모를 공개 비판했고, 내막을 모르고 胡黛雲을 질타하는 二娘을 직접 매질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한바탕 자작극은 가족 중 누구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빠까지 화를 입게 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陸子樵의 집안으로 번져왔다. 그녀는 뜻하지 않게 시가까지 멸문의 화에 몰아넣고 있었다.

黛雲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영원히 평등 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언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평등했던 적이 있었니?”

小茶는 입만 삐죽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갑자기 金點이 큰 소리로 말했다. “둘째 도련님이란 慧媛 아가씨도 말했어요. 장래의 신사회는 평등한 사회라구요. 하인과 주인이 똑 같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랬어요.” (...)

黛雲이 냉소하며 말했다. “암만 그래도 너랑 慧媛 아가씨는 평등하고 상관없어. 그건 너희 두 집안의 舊怨에 관한 일이니까”

小茶가 말했다. “윗세대 일은 金點하고 상관 없잖아요”
 金點이 말했다. “무슨 원한이요? 우리 집이 陸家에 원한이 있어요?” 그
 는 확실히 놀라고 있었다.¹⁶⁾

이것이 胡黛雲이 발견한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小茶를 아꼈고, 하
 인들에게 모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小茶나 金點이 평등한 세상을 거론하
 는 것을 내심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눈에 거슬리는 시누이인 慧媛은
 집 안의 하인인 金點과 ‘평등’한 연애를 꿈꾸고 있었다. 결국 胡黛雲은 慧
 媛과 金點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두 집안의 舊怨에 대해 발설했고, 충
 격에 빠진 金點은 陸씨집을 떠난다. 陸씨집안에 대해 비판투쟁을 일으킨
 것은 돌아온 金點이었다.

胡黛雲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토지개혁은 자기 길을 갔을 것이다. 사
 실상 역사의 대추세 속에서 개인의 역할은 보잘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는 오히려 개개인의 은원과 경쟁 이해관계 등 개별적인 인물
 들의 구체적인 판단과 행위를 촉발점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 앞에서 胡黛雲이 자신이 지옥의 문을 연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역사
 의 폭풍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그
 녀는 진실한 기억에 직면할수록 지옥의 밑바닥에서 멀어졌고, 모든 기억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빈 껍데기에는 다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난 환마이하지 않겠어!”¹⁷⁾라는 그녀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한
 마디는 자신의 이름과 역사를 다시 찾은, 즉 개인의 주체성을 재정립한 丁
 子桃의 자아 선언이었던 것이다.

16) 方方, 《軟埋》, 274쪽.

17) 方方, 《軟埋》, 283쪽.

V. 靑林의 여정 속의 역사 풍경

1. 개인 공간의 역사 서사

〈환마이〉는 大水井, 且忍廬, 三知堂 등 특정 공간을 대상화시켜 서술해 나간다. 그 공간은 단순히 과거 건축물의 물리적 현재 상태, 즉 산수풍경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소설은 건축학 교수 龍忠勇을 등장시키면서 전통 건축 공간과 사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축물이란 그저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네. 게다가 莊園은 더욱 한 가문과 자연, 사회 등 각종 관계의 응결점이지. 그 것이 시작된 연유, 흥성의 과정과 폐허의 시말은 모두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장원 건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마음 속에 진실한 역사를 지니고 있어야 하네.¹⁸⁾

方方은 龍忠勇을 빌어 장원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곳에 실제 살았던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외형적인 거대서사 대신 거기서 생활했던 평범한 인물들에게서 한 사회와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이다. 거대서사에서 배제된 개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개인 존재의 존엄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역사의 주름 속에 감춰진 평범한 개인의 생활의 진실, 영혼의 단절, 인성의 몸부림에 다가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은 건축물로 유비된 역사라는 공간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외침을 새겨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 건축 공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목소리와 영혼의 감정이 스며있는 생활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환마이〉는 개인 역사를 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 흠무덤으로

18) 方方, 《軟埋》, 83쪽.

제시됐다. 靑林과 龍忠勇이 처음으로 三知堂의 화원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충격을 받는다.

정원에는 온통 무덤이 흩뿌려진 것 같았다. 그 무덤은 나무 아래에도, 담벼락에도, 무너진 화단 옆에도, 화단 가운데도, 대나무 숲에도, 시선 닿는 곳곳마다 흩어져 있었다. 무덤에는 돌덩이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썩은 낙엽이 도처에 쌓여 있고, 무덤 위와 옆에는 잡초들이 미친 듯이 자라고 있었다.¹⁹⁾

三知堂 정원 곳곳에 흩어진 흙무덤더미는 그곳에서 살았던 개체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시각화해냈다. 그런데 흙무덤의 황량함은 三知堂만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사실상 靑林의 여정 첫부분에 배치된 大水井 李蓋五家の 실제 사건은 소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靑林이 접하게 될 역사의 진실의 시작이었고, 산중 대저택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허구 속의 且忍廬와 三知堂 사람들의 운명을 비춰주는 장치였다. 화원에 가득한 흙무덤은 역사와 허구가 서로 비춰주고 굴절시키며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 풍경이었던 것이다.

2. 역사를 구성하는 다성의 목소리

靑林의 현실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판단으로 土改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의견분분한 가운데 지금 ‘현재’의 중국의 역사를 구성해나간다. 군간부(劉晉源), 노병(劉晉源의 전우들), 농민(陸歡喜), 지식인(龍忠勇) 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구술하는 가운데 역사의 원모습은 최대한 짜맞춰지는 듯하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졌는지, 가난한 사람 중에 악질적인

19) 方方, 《軟埋》, 248쪽.

건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았어. 더욱이 어떤 부자가 착한 부자고 어떤 부자가 나쁜 부자인지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 뭐든지 즉석에서 배워야 했어. 게다가 전쟁과 토비 소탕이 이제 막 마무리됐지만 아직 殺氣는 남아 있었거든. 그럴 땐 상대를 진압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야. (...) 그러면 순식간에 과열되는거야. 한번 정도를 지나치면 브레이크가 없고, 다 엉망진창이 되지. 위에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땐 이미 많은 사람이 죽은 뒤였어. (...) 가난한 이들에게—그들이 어떤 세상에 살든지 말일세— 부자집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고, 지주네 땅을 자기 땅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누군들 적극적으로 안나서겠나? 천하 인심이란 똑같은 것일세.²⁰⁾

그 때는 독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부자들을 누를 수 없었네. 그들에겐 돈도 있고, 총도 있고, 民團도 있어서 다 끌어모으면 한 부대였어. 게다가 그때까지 숨어있던 국민당과 암암리에 연결되고 있기까지 했지. 토비소탕이 끝났어도 숨어있는 파괴분자들이 널려 있었어. 다행히 土改로 그들 꽤 거리와 지지 대상이 전부 무너지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 사회 안정의 대가는 참으로 컸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됐다는 걸세.²¹⁾

陸씨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가요? 왜 金點이네 집은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만약 陸씨네가 金點이네 땅을 억지로 뺏지 않았다면 그들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겠느냐고요. 설마 가난한 집 풍비박산 나는 건 별 것 아니지만, 부자집 풍비박산 나는 건 잔인하다는 건가요? (...)

앞에서 말참견 했던 노파가 말했다. “陸三이, 그 때 자네 집은 전부 적극분자였지. 마을에서 제일 좋은 땅은 다 자네 집에서 뺏어갔잖아. 자네 집 사람들은 그저 陸영감네 식구들이 다 죽어주기만 바라고 있었잖은가?”²²⁾

이들이 재현해내는 역사는 복잡하다. 당시 상황 속에서 혁명과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노혁명가도 있고, 土改의 직접 수혜자의 후손인

20) 方方, 《軟埋》, 110-111쪽.

21) 方方, 《軟埋》, 111쪽.

22) 方方, 《軟埋》, 260쪽.

陸三爺의 계급적 정의감도 있으며, 이런저런 역사 담론이 결국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른 사적 감정일 뿐임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역사는 劉晉源, 陸三爺, 노파 등에 의해 저마다 다르게 구술되지만, 군간부나 노병의 역사 담론 속에서 ‘진압’되고 ‘무찔러진’ 역사 고난의 진정한 담보자, 吳家名과 丁子桃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경험자이자 피해자는 유무의식적인 망각을 선택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서 자기 역사의 부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靑林은 吳家名の 일기장 속에서, 丁子桃의 주문 같은 몇 마디 중얼거림 속에서 부재하는 역사의 그림자를 의식하지만 그것은 靑林이 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 무거움과 두려움은 역사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환원된다.

Ⅵ. 역사에 대한 태도-기억과 망각의 의미

〈환마이〉는 역사를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것을 현재 중국을 구성하는 목소리로서 수용한다. 그런데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사람들, 자신의 존재의미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평범한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의 부재자 吳家名이 아들에게 남긴 일기는 그래서 긴 여운을 준다.

아들아, 이 일기를 볼 쯤에는 내가 이미 어른이 됐거나 세상이 변해서 이 일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출신이 어디인지 알려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엔 이미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흘려보내라. 나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너와 후손들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결심이다. 너는 뭇씨이고 武漢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²³⁾

23) 方方, 《軟埋》, 199쪽.

망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吳家名의 고통 앞에서, 鬼莊園의 흙 무덤 앞에서 靑林 또한 망연자실하며 끝내 망각을 선택했고, 지식인 龍忠勇은 그런 靑林的 선택을 이해한다.

삶이란 언뜻 보면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장막을 걷어보면 시퍼런 얼굴로 이를 드러낸 흉폭하고 두려운 것이야. 음, 나는 감히 진실에 직면하는 사람이 아닐세. 더욱이 역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평범하고 용숙한 자는 대항하지 않는 법, 내가 바로 平庸者이네. 나는 자연스레 기억하고 자연스레 망각하는 법을 배우겠네.²⁴⁾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어. 어떤 이는 좋은 죽음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구차히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망각하지. 100% 정확한 선택은 없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있을 따름이야.²⁵⁾

靑林的 망각의 선택은 친구도 이해했고 부친도 원했다. 기억상실과 실어증에 빠졌던 丁子桃는 발언권이 없으니, 어느 누구도 그의 망각에 대해 질책할 수 없다. 때문에 靑林的 망각은 개인의 선택이었고, 작가 方方은 최대한 靑林的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평온함을 얻었을까? 소설은 “나는 망각을 선택했는데, 너(龍忠勇)는 기록을 선택했구나, 하지만 네가 이미 기록했으니 난들 어찌 망각할 수 있을까?”²⁶⁾라는 靑林的 독백으로 마무리된다. 설령 작가는 평범한 개인의 망각의 선택을 이해했어도 완성된 텍스트는 서술의 틈새에서 망각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억 상실 후 丁子桃가 사실상 개인의 역사와 이름을 잃고 영혼이 사라진 껍데기로 살았던 사실과 대조하며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역사

24) 方方, 《軟埋》, 262-263쪽.

25) 方方, 《軟埋》, 288쪽.

26) 方方, 《軟埋》, 289쪽.

를 잃은 것은 이름과 신분 나아가 개체의 주체성을 잃은 것이다. 영혼을 불러오고, 역사기억을 마주하는 丁子桃의 분투는 사실상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위한 丁子桃의 지옥에서의 분투는 靑林의 망각에 대해 말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망각은 과연 주체의 새로운 정립을 향하는 자유선택의 또다른 이름일까?

VII. 나가는 글

〈환마이〉는 상당히 가독성이 높은 소설이다. 촘촘하게 짜놓은 스토리와 주목할만한 서술방식, 토지개혁이란 폭발력 있는 제재 및 주제 의식, 역사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독자를 향하여 설새 없이 구체적이고 복잡한 생활의 진경을 보여주고 설새 없이 질문을 던진다.

方方 특유의 문자의 사용도 특별하다. ‘軟埋’란 두 글자 사이의 상호 장력, ‘丁子桃’에서 유출되는 釘子와 逃의 대립적 운동에 대한 연상, ‘吳家名’의 상징적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劉晉源이란 이름도 작가의 작명 전략²⁷⁾이었음이 확실하다. 게다가 주로 胡黛雲의 서사에서 사용된 특유의 지방어²⁸⁾는 유장한 역사감을 더해준다. 문자, 서술, 구도 등의 치밀함과 유기적 관련성은 확실히 이 작품을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다가가게 하고 색다른 독서흥미를 북돋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무엇보다 陸子樵 일가의 집단 환마이 사건이 주는 충격과 서늘함이 전체 분위기를 압도한다. 그것은 확실히 다가올 박해에 대

27) 劉晉源이란 이름 속의 晉자는 그의 고향 山西를 의미하며, 劉晉源은 고향 사람 老起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이름은 吳家名の 역사와 연관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土改의 참극을 일부 지역(소설 속에서는 川東 지역)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하나의 역사로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8) 方方 소설 속에는 자주 湖北語가 등장했다. 주로 생활력과 생존의지 투철하고 드센 湖北 여성의 생활어로서, 강렬한 현실감과 지역적 색채를 보여주었다.

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려는 영웅적 비장미를 준다. 거기에 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집단 환마이에 참여한 것은 지주와 하인들의 관계는 결코 착취와 피착취의 단순계급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복잡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환마이〉는 결코 주류이데올로기에 의해 장악된 역사 서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역사와 현실을 끌어당겨 대중 화해시키지도 않는다. 〈환마이〉는 개인화된 시각으로 역사의 틈바구니 속의 인간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며 공감과 이해의 태도로서 역사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자신의 선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환마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부질없었다. 문학은 본래 허구와 역사, 상상과 사실, 기억과 현실의 두 영역을 수없이 왕복하고 도약하며 상하사방으로 확장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마이〉는 이미 정치적 원칙으로 갈음할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

〈참고문헌〉

- 박창욱, 〈方方소설 ‘軟埋’에 나타난 토지개혁서사의 의미〉, 《중국어문논총》 88집, 2018.
- 유용태, 〈중국의 토지혁명과 신민주주의경제, 1945~1953〉, 《중국근현대사연구》 55집, 2012.
- 冰 馬, 〈‘軟埋’敍事的本質-倒敍의歷史與現實時間之間的激蕩〉, 《湖北師範大學學報》, 2019.2.
- 陳國恩, 〈‘軟埋’-時空裂隙中的藝術與歷史對話〉,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8.1.
- 陳思和, 〈土改中的小說與小說中的土改〉, 《南京大學學報》, 2010.4.
- 方 方, 《軟埋》, 人民文學出版社, 2016.

- 方 方,〈好像真是在大上演大戲了〉, 2017.5.23. 方方新浪微博.
- 姬玉俠,〈生命的質詢和守望—論‘軟埋’中的存在主義意識〉,《攀枝花學院學報》, 2016.11.
- 李 嵐,〈向死而生的游歷式敘事—論方方小說‘軟埋’〉,《湖北文理學院學報》1期, 2017.
- 沈嘉達、沈思涵,〈‘軟埋’的歷史鏡像與敘事倫理〉,《小說評論》, 2017.3.
- 吳佳燕,〈在历史与时间的软埋之下〉,《當代作家評論》, 2016.4.
- 楊奎松,〈新中國土改背景下的地主問題〉,《史林》, 2008.6.
- 楊奎松,〈關於戰後中共和平土改的嘗試與可能問題〉,《南京大學學報》, 2007.5.
- 葉 李,〈遺忘—一種自由或虛偽的安慰〉,《南方文壇》, 2017.1.
- 張全景,〈‘軟埋’是新形勢下意識形態領域階級鬭爭的反影〉,中國夢文學網, 2017.5.22.
- 張 旭,〈媒體批評,警惕陷入非文學的陷阱—關於對‘軟埋’媒體批評的思考〉,《三峽大學學報》, 2017.1.
- 趙可銘,〈‘軟埋’是對土改的反攻倒算〉,中國夢文學網, 2017.5.23.
- 中共中央毛澤東選集出版委員會,《毛澤東選集,第1卷》,人民文學出版社, 1991.

<Abstract>

〈Soft Buried(軟埋)〉 is a fairly readable novel. From the compact storyline, the remarkable way of narration, to the explosive sanction and theme consciousness of Land reform, to the attitude of history, it constantly presents the reader with concrete and complex life scenes and asks questions. The meticulousness and organic relevance of letters, descriptions, composition and so on definitely bring this work closer to curiosity and tension and aroused a different kind of interest in reading.

But the shock and coolness of the Soft Buried incident overwhelms the entire atmosphere above all else. It is apparently a heroic act to control their own destiny and protect their dignity beyond the fear of looming persecution. Moreove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ervants in the Soft Buried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servants was a very specific and complex one that could never be reverted to the simpl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oiting class and the exploited class

〈Soft Buried(軟埋)〉 does not recognize one class, a particular position, as absolute truth, and does not exclude or attack others. 〈Soft Buried(軟埋)〉, with a personalized perspective, shows the human form of life in the gaps of history, shows history as an attitude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and shows that each has its own choice. So the political criticism of 〈Soft Buried(軟埋)〉, even if you understand the Chinese socialist literary tradition, is reckless and meaningless.

Key Words : 〈Soft Buried(軟埋)〉, 중국토지개혁(China Land Reform), 공감(empathy), 선택(choice), 개인화된 시각(personalized perspective)

